

익산시 민관 협치농정 주도

합열이전 북부청사 내 민간단체 입주 등 협업체계 구축 익산시농민회 반대, 지역 농업발전 대의적 판단 아쉬워

익산시는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열이 이전사건 북부청사에 미래농정국과 함께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입주시키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이 과정에서 농업인회관 이전과 기존 회관 매각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큰 틀에서 익산 농업 발전을 위해 상호 간 양보와 협치를 당부했다. 앞서 익산시농민회는 19일 익산시청에서 농업인회관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익산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농업인회관은 2001년부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민회가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2017년도 미래농정국이 신설되면서 농민회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단체와도 협치하고자 농업인회관을 북부청사 내로 옮기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월 입주 회합 조사 때 농민회를 포함한 11개 단체가 입주하기로 합

의했다. 또한 농민회는 2001년 6월 제 규정 익산시장과 익산시농민회 임승인 회장이 합열군민회관을 농업인회관으로 활용하자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2001년 6월 익산시장은 조한용 전 익산시장에 재입장을 때로 농민회의 주장과 맞지 않다.

농업인회관 일방적 이전에 대해서도 2016년도 매각결정과 함께 현재까지 농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였고 3년 정도 협의해 지난해 1월에 농민회를 포함한 11개 단체가 입주하기로 했다. 같은해 3월 농민회 집행부가 변경되면서 입장을 번복한 상황이다.

농민회에서 이전 조건으로 제시한 "현재 사용 규모인 150명 이상의 인원 수용 회의실 및 동일 면적의 사무실 보장"에 대해서는 북부청사 3층에 150석 규모의 행정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의실이 있으며 이외는 별도로 농민단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회관 내에 24평 규모의 회의

실을 설계변경을 통해 따로 마련하였고 농민회 사무실은 78㎡(23평) 규모로 리모델링 하였다.

익산시는 농민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 문제를 풀고자 작년 10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농민회에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농민회와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을 한 차례 미루기도 했다. 현재 새로운 농업인회관에 입주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와 (사)익산농업회의소 및 입주하고자 하는 다른 농민단체들을 위해서라도 농업인회관 이전을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제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업인회관 주소를 이전하는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어 공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회와는 앞으로도 간담회 등 충분한 대화를 이어가 농민단체가 새로운 농업인회관에 입주하여 농정에 대한 협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농민회에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흥남동주민센터(동장 최우진)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 흥남동주민센터, 민원실 안전가림막 설치

코로나 감염 확산방지 집중

군산 흥남동주민센터(동장 최우진)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흥남동주민센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민원실에 투명 안전 가림막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창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로 민원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대면 업무를 보기 때문에 비발

감염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 항상 우려돼 왔다.

이에 흥남동주민센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일환으로 민원 창구에 시범적으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도입했다.

최우진 동장은 "최선의 방역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민원창구에 투명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공무원과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병원, 코로나19 '모바일 CT'로 진단

신학협력기업 나노포커스레이 식약처로부터 인증, 긴급 도입



원광대학교 신학협력기업 나노포커스레이가 코로나19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저선량 모바일 CT를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아 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진단에 모바일 C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분자진단법인 RT-PCR가 WHO에서 권장 확인하는 표준 방법이지만 초기 진단에 있어서 CT는 RT-PCR보다 민감도가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PCR 71% vs CT 98%) 이는 감염 초기에 PCR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가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며 엑스레이나 CT에서 폐렴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CR 음성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양성으로 전환된 예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CT가 유용하게 사용되며 폐렴 진단뿐만 아니라 증증도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 병원에서 사용하는 고정형 CT는 코로나 의심 환자를 촬영하기에는 일반 환자의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 때문에 이동형 CT가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광대학교 신학협력기업 나노포커스레이(대표이사 윤

권하) 원광대병원(장)가 코로나19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저선량 모바일 CT를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아 출시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에서 개발한 모바일 CT는 원래 근골격계와 척추 영상용으로 개발하여 시판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폐렴 진단을 위한 흉부 영상 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지난 3월 11일 긴급도입 의뢰기기로 식약처 승인을 받게 된 것

이다. 현재 원광대병원에서 운영중이며 전국의 여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치 문의가 오고 있다.

이 장비는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촬영이 가능하며 방사선 선량이 기존 CT의 20% 정도의 저선량으로 촬영이 되며 외국의 전신형 이동형 CT에 비해 가격 또한 현저히 낮아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급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정책 큰 호응

정책 지원 등... 올 33명 선발

익산시가 추진 중인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교육부터 정착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에도 성큼 다가가고 있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농을 선발해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발된 인원은 모두 59명으로 수도작과 원예, 축산 등 다양한 영농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들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과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농정착금의 경우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이 지원된다.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영농 관련 융자금 3억원 이내에서 금리 2% 중 1%를

익산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스마트한 농촌으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개선 등 영농에 필요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청년창업농에게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만 39세 미만의 4-H에 가입된 청년농업인이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비와 친환경농업을 하는 청년농의 학교급식 납품 참여 기회 제공, 농산물 가공사업 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영농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익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공적 정착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청년창업농이 많아지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도 청년창업농 3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당초 32명을 예정했으나 경영실수 임대농장 완공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1명을 추가 배정받았다. 지원자 55명 중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46명으로 다음 달 29일 면접 평가를 거쳐 5월초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내버스 노선 변경

군산시는 오는 28일부터 군산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오는 4월 5일 학교 개학 전까지 시내버스 운행 일부노선을 변경해 시내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운수업체 수입금이 30%정도 감소됨에 따라 노·시간 상생을 위한 협의를 통해 일부노선에 대한 감회를 하기로 했다.

군산시 시내버스는 군산여객(주)과 우성여객(주)의 2개업체에서 1일 118대의 버스가 58개 노선, 1,222회 운행을 하고 있으며, 평일 운행시간을 휴일 운행 시간으로 변경하는 이번 일부 노선 감회를 통해 13개 노선, 10대 차량을 감회 운행한다.

시내버스 운영을 45개 노선은 평일 시간으로, 13개 노선은 휴일 시간으로 변경되어 운행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일부노선 감회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에서는 시내 일원 23개의 도로전광표지판(VMS),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운행 일부변경 안내 홍보를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2회 임시회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마감을 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와 해방기 주요사업장 안전실태 점검으로 시민생활 안전과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짚고 나갔다.

먼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7일부터 2일간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조3,072억1,100만원보다 646억1,900만원(4.9%)이 증액된 1조3,718억3,000만원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